

도서발굴단 추천도서

지난달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?
#특이점이온걸바속속 #천사소녀답정너 #무채색레드벨벳 #휘귀친구마라탕이 추천합니다.

글. 고양시도서관센터

도서발굴단이란?

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.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
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.
<https://m.post.naver.com/my.nhn?memberNo=22522629>



#1

욕구들



캐럴라인 냅 | 북하우스

내가 생각하기로 내 대부분 욕구의 방향은 목적도 없이 사방으로 뿜다 결국 희미해졌다. 외로움과 용기의 반짝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아집을 보고 그것이 나의 용감이라고 다짐하게 한, 위대하고도 가득한 책이다. 올해의 최고의 책이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. #특이점이온걸바속속

책속한줄

“가짜 신들에게 매달리던 희망을 바른길로 이끌고, 초점을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돌리고, 자신의 개인적 고통을 더 큰 맥락에서 보는 법을 배우고, 몸과 정신을 연결하게 되는 것...그 일에는 언제나 낡은 패러다임을 무너뜨릴 언어의 능력이 필요하다.”

#2

기후변화 시대의 사랑



김기창 | 민음사

기후위기를 주제로 쓴 단편소설집이다. 소수의 사람들만 보호받는 돛시티부터, 폭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, 생존의 위기에 몰린 북극곰의 이야기까지. 지금은 소설 속 상상의 이야기지만, 어쩌면 차마 알고 싶지 않았던 미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아마도 작가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던 기후위기를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'나의 문제'로 받아들이게끔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. #천사소녀답정너

책속한줄

“사냥터는 점점 쪼그라들었고, 사냥감을 향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. 아푸트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었다. 북극에 사는 모든 존재가 그랬다. 자연에 우연은 없었다.”

#3

따님이 기가 세요



하말넘 많 | 포르체

인기 유튜버 '하말넘 많'의 에세이다. '하말넘 많'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두 친구가 여성을 위한 미디어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걸고 운영하는 채널의 이름이다. 이 둘을 대표하는 단어는 페미니즘이다. 그러나 꼭 페미니즘이라는 이슈를 떠나서라도 젊은 친구 둘이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비혼 라이프가 담담하게 담겨있다. 그동안 이들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궁금하다면 한번 펼쳐보아도 좋겠다. #무채색레드벨벳

책속한줄

“언젠가 채널의 목표가 '소멸'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.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산다는 건, 아직도 불편한 점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것을 뜻할 테니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채널의 소멸이라는 뜻이다.”

#4

삼겹살의 시작



김태경, 연승우 | 팜커뮤니케이션

요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즐겨 보고 있다. 그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삼 채소에 쌈장 찍어 삼겹살을 먹는 영상이었다. 내가 생각해도 삼겹살은 외국인이 반할 만큼 맛있다. 그동안 삼겹살을 옥여넣기 바빴지만, 이제는 삼겹살의 송고한 역사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먹을 것 같다. #휘귀친구마라탕

책속한줄

“삼겹살은 '우리가 남이가' 하던 시절의 종교 의례였을 거다. 용서와 화합의 역사를 만드는 밤바다 의례.”